

광주시교육청, 다문화 감수성 교육 강화

2020 제1회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개최

다문화 감수성 향상·교육 전문성 제고



광주시교육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문화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 다문화학생은 2018년 3,040명, 2019년 3,553명으로 매년 500여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제

회 광주광역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광주 전체 학교와 직속기관에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안내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 및 다문화 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학생 담임교사에게 전체 교원으로 확대했다. 이제 모든 교원이 3년간 15시간 이상의 다문화 교육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또 교직원의 의무 연수 과정에 다문화 관련 내용을 2시간 포함했다.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및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도 24교를 운영한다. 한국어학급은 작년 4교 7학급에서 9학급으로 늘리고, 유치원에도 1학급을 최초로 도입한다. 유치원과 초·중등 정책학교를 각각 11원, 7교를 운영하며 연구학교는 1교를 운영한다.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교사 멘토링을 확대해 학습부진을 예방하고, 정서·심리 상담 시 통역서비스 지원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다문화학생을 위한 사전 적응교육인 '징검다리 과정'도 3개교로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 운영하던 지원 사업도 계속된다. 대학생 멘토링은 올해부터 유치원 원아까지 확대 운영되며,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언어 통·번역 서비스 취학 및 편·입학 지원,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누리집 운영,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 다문화교육 자료 보급 사업 등도 지속한다.

시교육청 오경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문화사회에 대응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전체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가 더욱 필요하다"며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문화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광양외국어체험센터 English Camp

“겨울 캠프서 즐겁게 영어 배워요”

광양외국어체험센터에서는 2020년 1월 6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월 17일까지 10일간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 중이다. 영어캠프는 광양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1기와 2기로 나누어 진행하며, 하루 6시간의 수업을 위해 점심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1기 참가자는 48명, 2기 참가자는 51명으로 각 1주일(5일)간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관내 26개 학교에서 모인 참가 학생들에게 겨울 영어캠프는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려 생활하는 과정을 통해 영어의사소통능력과 더불어 공동체역량까지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School Subjects'로 각 코너는 Experiments, P.E&Music, Space, Math&Arts로 구성된다. 코너명은 현행 학교의 교과와 비슷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학교교육과의 차별화를 위해 학교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체험 위주의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학습 자료 구입과 제작에도 상당한 노력과 예산을 들였다.

Experiments에서는 달걀로 중력 실험하기, 회전 에너지를 이용한 새총 만들기, 염화나트륨으로 아이스크림 만들기, 동

전으로 부식 실험하기 등이, P.E&Music에서는 올림픽의 역사를 바로 알고 대표 종목 체험하기, 세계의 축제와 축제 음악 알기, 특정한 나라의 악기 연주법 익히기, 대중음악을 알고 K-POP 따라잡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Space에서는 천문학의 기본 요소 알기, 태양계 만들기, 망원경 만들기, 별자리 꾸미기, 외계인 이야기 상상하기 등의 활동을, Math&Arts에서는 일상속의 수학적 내용을 영어로 표현해 보기, 인간좌표를 통해 그래프 이해하기, 과자로 분수 놀이 하기, 수학자들의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알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미 1기 캠프를 끝낸 학생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캠프 만족도 설문 조사에서도 “6학년 때도 또 오게 해주세요. 꼭 다시 오고 싶어요.”라거나 “이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이대로도 너무 좋아요.”라는 답변이 쏟아져 선생님들을 흐뭇하게 했다.

심지어 두 학생은 중학교 때까지 캠프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선생님들의 정성과 노력이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성취감으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교육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부메랑일 것이다.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비전 캠프’

2020 신입생 대상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가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 동안 교내에서 '2020 광주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신입생 비전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2020학년도 신입생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안정적인 고등학교 생활 및 취업에 대한 확실한 목표 설정을 위해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2박3일의 캠프 기간 동안 '디자인 씽킹교육'을 비롯해 진로교육, 팀빌딩 교육, 예절교육, 취업 마인드 교육에 참여했다. 특

히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 5·18 민주묘지 참배 등 5·18 관련 된 장소를 찾아 지역 역사의 아픔을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장은 “신입생들이 역량을 갖고 뛰어 3년 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의 모습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는 입학 전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4회째 신입생 비전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히말라야트래킹 나선 전남교육청 학생들

안나푸르나 눈사태 피해 안전하게 하산

겨울방학을 맞아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트래킹에 나선 전남도교육청 소속 학생과 교사들이 현지 산악지대에서 눈사태 소식을 접하고 중도에 하산,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소년미래도전 프로젝트 히말라야' 학생과 교사 등 21명은 이날 세계 10위봉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해발 8,091m) 베이스캠프(ABC, 4,130m) 등반에 나섰다. 눈사태 소식에 곧바로 철수했다.

이들은 이날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MBC, 3,700m)로 향하던 중 해발 3,000m 쯤에서 폭설과 눈사태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하산했

다. 이들은 18일 현재 1,565m 지점인 란드록까지 내려왔으며, 19일 오스트리아 베이스캠프를 거쳐 20일 당초 출발지점인 포키라로 돌아온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전남도교육청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에 선정된 뒤 7개월 간 국내 등산 활동을 통해 체력을 길러 지난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9박 10일 일정의 히말라야 트래킹 도전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히말라야 도전에 전문산악인인 자련탐구수련원 소속 직원을 동행하게 해 안전한 산행을 도왔다.

허성은 기자

영암교육청, 통학차량 운전직 직무교육

영암교육청은 최근 겨울방학 기간 중 일선 학교 통학차량 운전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통학차량 운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역량 강화, 개정된 법령과 차량고장 시 점검요령 습득을 통해 운전직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 되었다.

방학중에도 돌봄학교운영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등·하교 지원으로 연수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연수기회가 없었던 만큼 이번 연수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연수 한 참여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해남 학교지원센터 통학차량 임차 지원

해남교육청은 2019년도 출범한 학교지원센터를 통해 매 학년도 단위학교에서 추진하던 통·폐합 학교 통학차량 임차 용역 계약을 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공립학교 7교, 통학 버스는 총 11대다.

해남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교 학교 내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상학교에 통학차량 임차료를 지원해왔으나, 통학차량 임차 용역 계약의 잦은 유찰로 인해 학교에서는 신학기 시작 전 통학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남 학교지원센터에서는 단위학교별로 추진했던 통학차량 임차 계약 업무를 이관하여 통합 계약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애 학교지원센터장은 “학생 안전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통학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입학부터 계약까지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학차량 임차 용역 계약 지원은 적기에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으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및 복지 향상과 더불어 단위 학교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과정 정상운영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